

[1. 성장 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

저는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 전자기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즐겼고, 이러한 성향은 자연스럽게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분석과 탐구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한 번 맡은 일은 철저하게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 학창 시절 및 전공 관련 경험]

전북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이며, 복수전공으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면서 Python, C, Linux, SQL, Java 등 다양한 언어와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웹·앱 보안에 흥미를 느껴 웹 취약점 진단 실습과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모의해킹 환경을 구축해 SQL Injection, XSS, CSRF 등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공격기법의 습득을 넘어, 보안의 본질은 ‘사용자의 신뢰를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3.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저는 기업의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공격자의 시각에서 사고할 수 있는 ‘레드팀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팀 내 협업과 문서화 능력을 통해 실제 보안 운영 환경에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입사 후에는 웹·모바일 보안 점검 및 침투 테스트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보안 아키텍처 설계와 위협 헌팅 체계 수립까지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 발전하겠습니다.

[4. 마무리 다짐]

저에게 보안이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로, 작은 취약점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보안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귀사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팀원이 되겠습니다.